FDD/BA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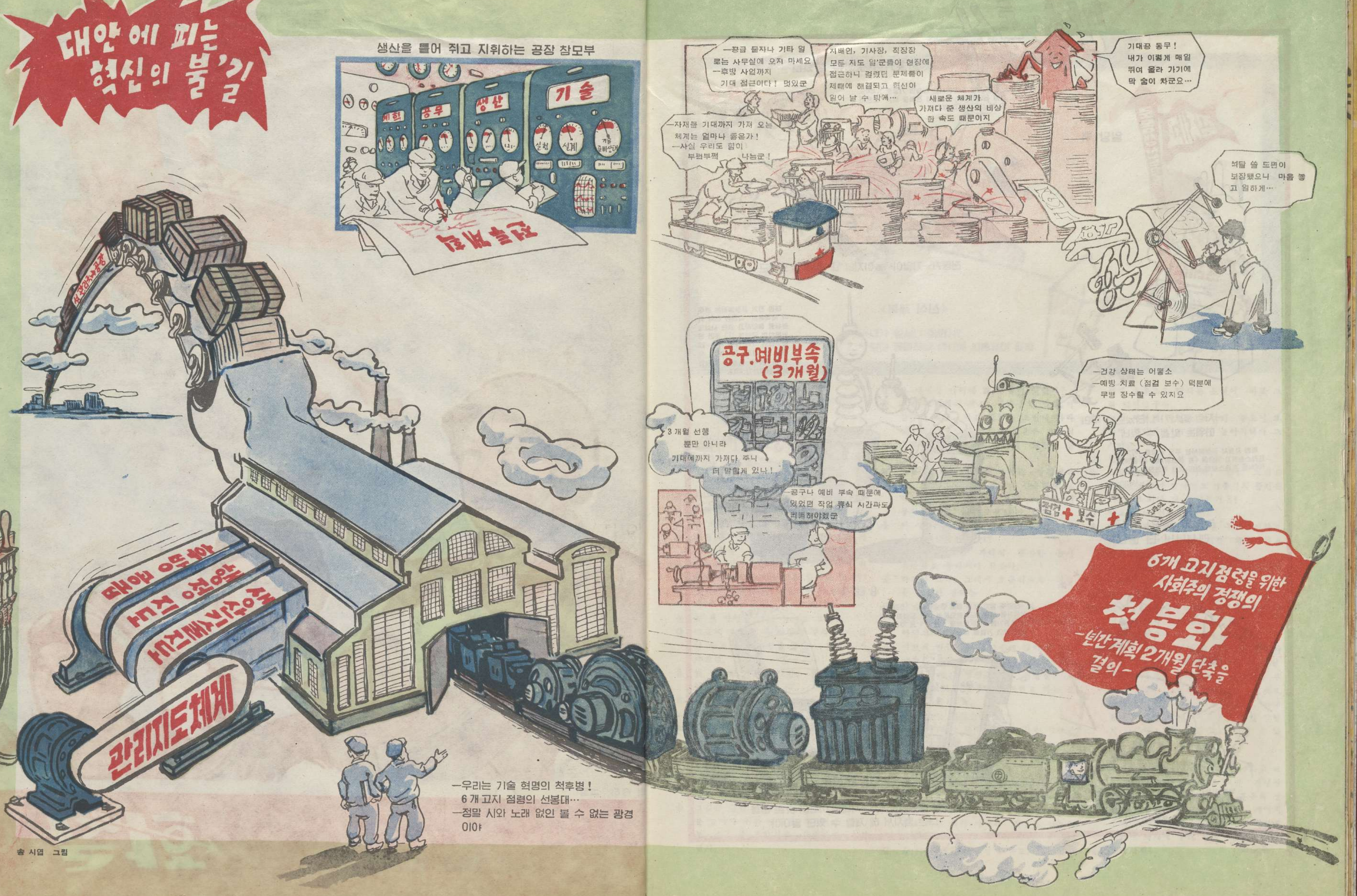
믿음직한 보위자

2 - SEP 1 9
Copy 1962

박 승히 그림

화살

1962년 2월호 (151)


대안에 피는 혁신의 불'길
생산을 틀어 쥐고 지휘하는 공장 참모부
계획
공무
생산
기술
실험
설계
관리지도체계
—공급 물자나 기타 일로는 사무실에 오지 마세요 —후방 사업까지 기대 접근이다! 멋있군
지배인, 기사장, 직장장 모든 지도 일'군들이 현장에 접근하니 걸렸던 문제들이 제때에 해결되고 혁신이 일어 날 수 밖에…
—자재를 기대까지 가져 오는 체계는 얼마나 좋은가! —사실 우리도 힘이 부쩍부쩍 나는군!
새로운 체계가 가져다 준 생산의 비상한 속도 때문이지
기대공 동무! 내가 이렇게 매일 뛰여 올라 가기에 막 숨이 차군요…
석달 쓸 도면이 보장됐으니 마음 놓고 일하게…
공구.예비부속 (3개월)
3개월 선행 뿐만 아니라 기대에까지 가져다 주니 더 말할게 있나!
—공구나 예비 부속 때문에 있었던 작업 휴식 시간과도 리별해야겠군
—건강 상태는 어떻소 —예방 치료 (점검 보수) 덕분에 무병 장수할 수 있지요
점검 보수
6개 고지점령을 위한 사회주의 경쟁의 척봉화 —년간계획 2개월 단축을 결의—
—우리는 기술 혁명의 척후병! 6개 고지 점령의 선봉대… —정말 시와 노래 없인 볼 수 없는 광경이야

송 시엽 그림

만화통신

일당 백

—저런 장사가 나타났으니 우리 따위는 맞설 수 없네

덕천 자동차 공장에서는 주요 공정을 92%나 프레스화하고 있으며 4월 중순까지는 전 공정의 100%를 프레스화할 결의 밑에 투쟁하고 있다.

전동기의 소원은 풀렸다

황철 제강 직장에서는 강괴의 가열을 1,250도까지 높임으로써 압연에서 전력을 적게 쓰면서도 생산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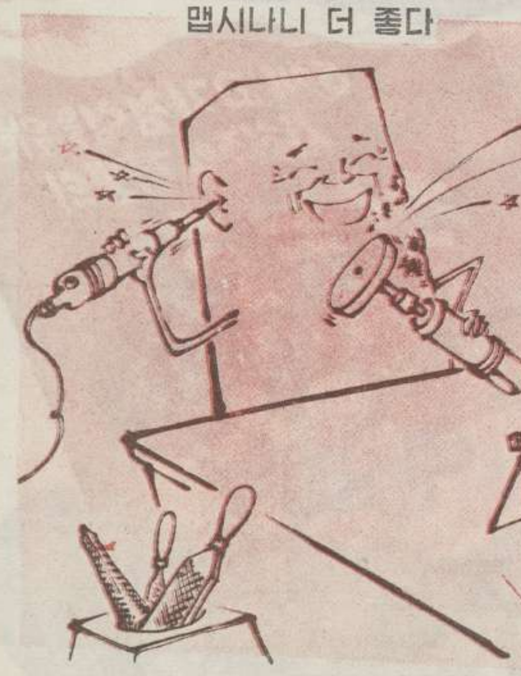
전동기—가열이 높아지니 내 힘이 덜 드는군…

《신식 제복》

대안 전기 공장에서는 변류기 제작에서 막대한 강재 절연유를 절약하고 있는 사실을 비롯하여 금년에 173 톤의 변압기유와 144 톤의 규소 강판파 철, 강재, 전기동, 석탄 등 7만 여 원분을 절약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 감이 적게 들면서도 얼마나 쓸모 있고 맵시 있나 말해요

능률이 높으니 좋고 맵시나니 더 좋다



덕천 자동차 공장 공구 직장에서는 연마 작업에 공기 연마기를 창안 도입함으로써 종전에 줄칼로 연마할때 보다 10 배의 작업 능률을 높이고 있으며 제품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

9 대 1

신의주 유지 생산 협동 조합에서는 스크류식 착유기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이미 도입한 수압식 착유기에 비해 로력을 4 분의 1 로 주리고도 같은 량의 기름을 생산하고 있다.

스크류식 착유기—에헴, 자네들 아홉이 하든 일을 나는 혼자서 해 제낄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앞서니 어떤가?
—길이 평탄하니 생산에 파동성이 없네

최 영근 그림

갑 저—, 여기가 서구 지구 공공 건물 트레스트 청년 직장입니까?
을 이 사람, 영철 동무가 아닌가?!
갑 병권 동무로구만, 축하하네. 1 인 4 세대 운동을
을 전투는 이제부터네, 근데 자네 아직 원산에서 건설 조립공으로 일하고 있지?!
갑 일하다 뿐이겠나? 해두 아주 모범적이지!!
을 또 제 자랑을 널어 놀려고 드는군.
갑 여보게 오늘은 내 자랑의 뚜껑을 딱 덮어 두고 자네 자랑을 좀 싸 가지고 가야겠네.
을 뭐 자랑할 게 있어야지. 더구나 자네 앞에서는…
갑 기적 소리는 가자고 재촉하고 일터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긴가?
을 그렇지, 우리 함께 어깨 겯고 20만 세대 주택 고지를 점령할 투사들이지! 그럼 허물 없이 우리의 자랑 보따리를 한번 풀어 제껴 보세나!
갑 우선 기술 기능 수준과 기계화 및 조립화의 비중을 높였겠지?!
을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선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예비를 찾으려고 머리, 눈, 손을 총 동원시켜 탐색하기 시작했지.
갑 그 예비가 어디에 많이 숨어 있던가?
을 그건 조립성의 제고, 부속품의 선행, 기공구의 확보, 마감 작업을 조립에 따라 세우는데 숨어 있었지만 기본은 흐름식으로 작업을 조직 못한데 있더란 말이야.
갑 흐름식! 아주 중요한 고리를 발견했는데, 이것이 안되면 작업의 전문화와 로력 절약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공의 속도도 질도 보장할 수 없지.
을 이 사람, 나보다 선생인데두 배우려 왔다고 양양대는 거야?
갑 건설에 근 10년 가까이 종사한 놈이 그만큼도 몰라서야 되겠나.
을 하기야 그래. 그래서 흐름식으로 작업을 조직한 결과는
갑 아니. 어떻게 해서 흐름식으로 조직 했는가를 똑똑히 밝히고 넘어 가야 될게 아닌가!
을 여보게 비둘기가 소나무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는 격으로 솔직히 말해서 내 정신은 지금 건설장에 가 있네, 그래서 껑충껑충 뛰려고 하는 것은 량해하게
갑 이 사람이 변명은?
을 앗다 이 사람 내가 뭐 죄 지은 사람인가 욱박을려고 들지 말게
갑 욱박는게 아니라 대줄 의무가 있잖나, 선구자로서…허허허
을 웃기는…그런데 흐름식으로 넘어 가기 위해 기초, 조립, 마감 등 작업반을 조직했는데 매 작업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식이 아니라 작업을 전문화시켰지.
갑 옳아, 자네들이 《번개 속도》인 1 인 4 세대 운동으로 달리는 초점이 바로 그런 것이였구만.
을 그럼 이렇게 작업을 조직해 놓으니 로력이 쏟아지고 리용률이 높아지더라 그거야.
갑 빨라지는 건 건설 속도구
을 그렇지 그래, 물론이지, 동당 로력은 2,230 공수가 절약되고 기중기의 공전은 하루 16 회나 더 높아지거든!
갑 알고 보니 쉬운걸…괜히.
을 여보게 자네같은 사람을 두고 뭐라고 하는줄 알어? 배은망덕지 행동이라고 한다 말이야.
갑 에—잘못됐네…근데 여보게 대단하데 대단해
을 뭐가 대단해?
갑 자네들은 벌써 1 년간 쓸 기공구를 작년 년말까지 마련했구…
을 그런 것쯤이야 뭐 대단할게 있나
갑 그리구 동무네 직장 로동자들은 말이야 아직 추위가 다 가지 않았건만 매 작업장마다 웃통을 벗어 제치고 혁명가를 부르며 불타는 정열과 충천하는 기세로 냅다 달리는 모습은… 문제 없이 자네들이 결의한 년간 계획을 2 개월 앞당겨 완수하고 300 세대를 더 지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이네.
을 고맙네.
갑 왜정때의 80 배. 《평양 속도》의 3 배로 달리는 자네들의 뒤를 이여 건설장마다 울려 오는 1 인 4 세대 운동의 장엄한 행진곡이 들리는가? 20만 세대의 주택 고지를 기한 단축하여 점령하기 위하여 억세게 우리 함께 진군하세나!
을 진군하세!

피 호 주

박사 김 봉한 교수를 열렬히 축하한다.

김 봉한 교수는 자기의 탁월한 과학 연구 사업을 통하여 현대 생물학 리론의 원칙적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해명을 주었으며 의학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해결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였으며 동의학 리론에 확고한 물질적 근거를 부여하였다.

홍 종호 그림

황해 제철소 조강 직장 운반공 리 봉섭 아바이는 60이 가까운 고령이나 로동과 사회 생활에서 항상 젊은이들의 앞장에 서서 근면하게 일하여 기업소적으로 《공산주의 아바이》라는 영예로운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다. 그는 땅 속에 파묻힌 유색 금속 팡다리, 부속품 등을 수집하는 일을 3년째 하루도 번짐없이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현재 유색 금속만도 2톤 700kg라는 놀라운 량을 좋아 국가에 바침으로써 막대한 리익을 주고 있다.

황해 제철소 리 순옥 그림

「1211 고지 전투」 참관기

별이 총총한 하늘에 검붉은 구름떼들이 소용돌이치며 기여 오른다. 방금 쇠'물의 폭포라도 쏟을 듯—

…굴뚝에서 황황 내뿜는 불'길, 까마득한 천장 며들'보에서 팍팍 뒤번지는 용접광, 산소 절단기의 화광, 평로들에서 이글거리는 쇠'물— 지상은 말 그대로 들끓는 불도가니요, 하늘은 온통 불아성이다.

—꽝, 꽈다당, 꽝, 꽝꽝!—

사람들이여, 잠시 잠을 깨여 저 장쾌한 음향에 귀를 기울이라

밤 1 시— 50만 톤의 강철을 재촉하여 분괴 압연 직장 건설장에서는 지금 이 시각에도 남포가 터지고 또 터진다. 첫 새벽 첫 돌격을 알리는 포성과도 같이!—

그렇다, 포성이다! 전투는 치렬하고 경쟁의 불꽃은 더욱 세차게 타오른다. 저저마다 새 날의 첫 출강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 용해공들은 연방 명중탄을 퍼 붓는다. 철철철 용사들의 구리'빛 얼굴에 흐르고 흐르는 황금 같은 땀'방울이 그 대로 평로에 스며 드니 어느새 무쇠 장군들이 줄을 지어 120만 톤 강철 고지를 향해 다름질친다.

…웅—웅— 광석을 녹이는 용광로의 우짖음, 각종 포탄(원료)을 나르느라고 사령의 구령(호각 소리)에 맞춰 포연 탄우를 뚫고 밀려 드는 화차들의 기적 소리, 와르릉거리는 기중기 소리, 여이샤 여이샤 뛰고 달리는 1211 고지 돌격 대원들의 발'구름 소리, 평로공들의 노래 소리, 쇠'물의 폭포 소리— 수 천 갈래의 음향이 서로 화답하여 하나의 장엄한 교향곡으로 울려 퍼지는 곳— 여기가 바로 강철 기지 황철이다!

× × ×

《방금 들어 온 소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어 온 소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근하는 로동자, 퇴근하는 사람들 모두 발'걸음을 멈춘다.

확성기는 로 단위 지상 경쟁을 호소한 4 호 평로 투사들의 새 결의를 알린다. 한 로에서 8만 4천 7백 톤의 강철 생산—이는 실로 전년의 46.5%의 장성이 아닌가!

이를 위해서는 제강 시간은 3 시간 45 분을 단축하여 9 시간 5 분으로, 평로의 가동일 수는 305일 이상으로 로저 평방 메터당 생산량은 7 톤으로 높여야 한다.

《동무들, 모두 다 4 호 평로의 뒤를 따라 앞으로!》

쨍쨍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공장 온 누리에 메아리치며 흘러 간다.

이에 발 맞춰 강철 전사들은 훌륭한 전과를 올릴 결의를 다지며 제각기 자기의 전투 서렬로 달려 간다. 평로들을 지원하는 린접 부대와 후방 부대들은 오늘도 총 진군, 총 돌격이다.

《사랑하는 4 호 평로야, 전투의 최선두에 나선 너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

이렇게 웨치며 장입기 운전공이 듬뿍 한 바가지의 파고철을 쏟아 넣는다. 그러자 평로는 대번에 열을 토하며 놀랜다.

《이게 웬 일이요 뉘 덕에 그런 요술을 배웠는고? 술술 내려 가 기분이 좋고, 한 바가지의 파고철에도 이 내 몸 곱절이나 기운을 낼 수 있으니 말이다》

《평로야, 그게 요술이 아니라 바로 기술이란다. 기술. 갓 즈이 다듬은 고철을 프레스로 다지고 다져 종전의 500 키로가 일약 1 톤으로 뛰여 올랐으니 우리의 장입 시간은 물론 그대가 삭이는 시간 (제강시간) 단축도 갈 데 없게 된거라오》

《어디 그 뿐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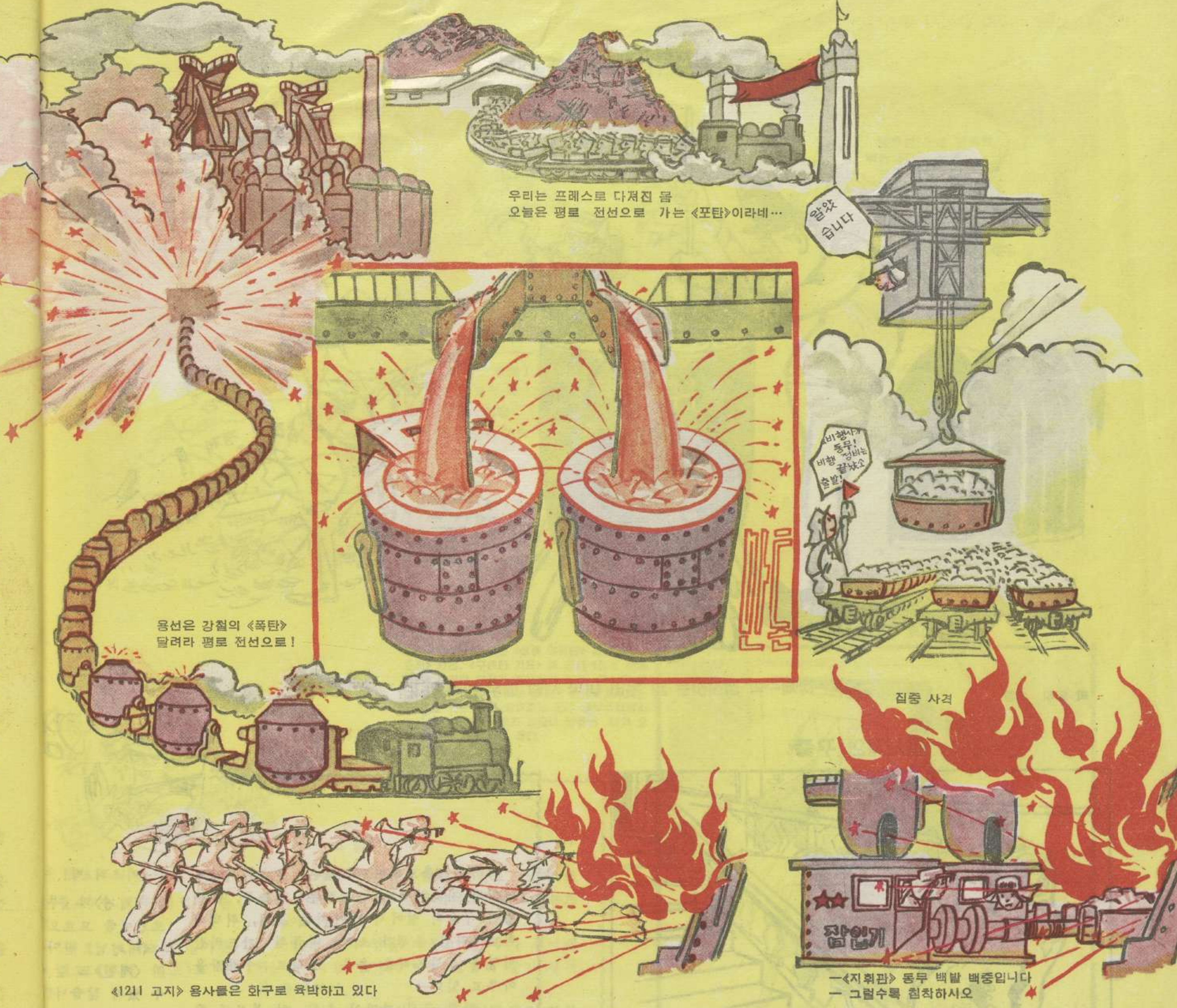
방금 포탄을 날라 온 기중기 처녀 운전공이 평로에게 후방 부대의 전투 모습을 전한다 《너의 밑바닥을 무자비하게 오려 내군 하는 유색 금속, 너의 창자를 사정 없이 비트는 주철, 그리고 비금속물과 폭발물— 온갖 잡물을 깡그리 적발 처단하니 이제는 너도 알뜰한 이밥만 먹게 되였구나, 게다가 기름이 쫄쫄 도는 광석은 또한 얼마나 좋고…》

《고맙다 나의 존경하는 운전공 아가씨. 진정 감사를 드린다. 부디 원료 직장에도 나의 인사 전해 다오, 맛 있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보장해 준 그 은혜 엎드려 귀 잡고 절한다고—》

《자, 이웃 사촌 평로들! 우리도 당당히 웨치련다, 우리의 전투 능력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아는가? 우선 귀소분을 0.3%로 낮춘 용선 맛이 어떤가 말해 보라》

어깨를 겯고 우뚝 솟은 두 철 장군(용광로)이 위용을 떨치며 자기들의 혁혁한 전과를 자랑한다.

그렇다, 질 좋은 평로선을 공급하기 위해 용광로 직장에서도 긴밀한 협동 작전이 벌러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전투 임무인 로의 건강 상태를 정상화하기 위해 기술 부원장 (기술 부직장장)을 중심으로 내과 과장(로장), 주치의(사령원), 그리고 로체공들이 종합적인 협의 진단과 정확한 처방을 내린다.



용광로는 말한다, 더는 나에게서 체'증이나 랭각 병을 찾지 말라, 찾을 것은 오직 55만 톤의 선철 고지

허지만 새로운 기적은 날에 날마다 창조되는 법, 이번에는 현대적인 무기로 장비된 용선 예비 처리로가 평로에게 첫 상봉의 인사를 전한다.

《우리 함께 타며 끓자. 용광로가 미처 못 다 섬멸한 귀소분을 내 깡그리 잡아 치우마. 그대들 정말 오래' 동안 이 역한 오물을 삼키고 삭여 왔구나. 장하도다, 그로하여 그대들은 얼마나 단련되고 건강해졌는고! 그 기세, 그 투지로 더욱 더 억센 깡쇠를 구워 내라》

승리의 개가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다음은 조괴 직공 용사들의 노래를 들어 보자.

《달랑달랑 강철을 달라고 조르며 기중기 달려 오네, 우리 조괴 직공으로

평로들아, 우리의 전투 구호를 듣는가? 얼마든지 쏟아만 내라 강철을! 그대들이 오래 동안 낯'익힌 조괴 비트는 당분간만 찾아 다고 멀지 않아 대차를 주입하면 그대들 일제 사격을 퍼 부어도 단숨에 막아 낼 수 있다. 우리는 기어히 그대들한테서 50만 톤의 강철을 받아 내고야 말테다. 어디 한 번 든든히 맞서 보자!》

《념려 마오 우리의 호소는 약속이며 법이며 당의 지령이라오》 작업반장 백 근호 동무가 휘젔는 지휘봉에 맞춰 4 호 평로 투사들이 합창을 한다. 《우리의 화선은 철벽, 우리들은 당의 아들, 1211 고지의 용사들! 이 고지의 불멸의 영웅 리 수복이 몸으로 화구를 막았다면 우리들 또한 몸으로 화구를 열고 심장의 불벼락을 안긴다오, 안긴다오!》

4 호 평로를 맞받아 린접로들에서도 노래를 부른다. 만만치 않은 경쟁자들의 노래! 호마다 자랑도 많아 4 호 평로 집단을 몸과 마음이 굳고 굳어 말 그대로 강철이라고 부른다면 잔잔하면서도 생각이 깊고 결단성이 있어 금년 새해의 첫 출강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떨친 1 호, 나아가자면 달리자는 기백이 용솟음치는 2 호, 말없이 꾸준한 3 호, 볼 때마다 듬직하고 믿음직한 5 호— 이렇듯 제각기 특성은 다르나 그들의 마음은 흐르고 흘러 맺히는 곳은 오직 하나— 50만 톤 강철 고지!

× × ×

《1211 고지》 전사들이여!

바로 당신들이 금년도 6 개 고지 전선의 승패를 좌우한다.

7 개년 전투 계획에 대한 신심도 6 개 고지 우에서만 굳어질 수 있다.

크낙한 영예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간직하라!

모두 무기 (기술)에 정통하며 각종 전투 기자재 (생산 설비와 원자재)를 눈동자와 같이 애호하고 그의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이라!

나타나는 미상을 모조리 점령하고 로획품을 극력 아끼라 (증산과 절약)

전투의 어려운 고비에 부닥칠 때는 유일한 안내자를 청산리 교시에서 찾으라!

각 구분대 실정은 각이하나 례외없이 천리마를 타고 진군하라!

한 사람의 락오자도 없이 전원 120만 톤의 강철 고지 우에 승리의 기'발 휘날리게 하라!

강철의 대오들, 당의 구령 따라 돌격 앞으로!!!

유 진용 글, 허 능택 그림

상전을 위한 《경제 계획》

미제의 조종하에 꾸며진 박 정희의 《5 개년 계획》은 남조선 경제의 파탄과 예속을 더욱 촉진시키며 미제의 전쟁 준비 책동에 발 맞추어 남조선에서 군사화 정책을 촉진시키고 그 부담을 인민들에게 들씌우려는 범죄적 계획이다.

박 승히 그림

미제—박 정희하는 일 우리 미국 사람 매우 만족합니다

망할 세상 (11) (무법 천지)

박 승히 그림

돌사자의 꾸중

—내가 몇 백년 동안 여기 앉아 있었어도 너같은 살인 강도배이며 매국노는 처음 본다

용한 처벌

리 철희

캬바레 《플로리다》의 넓은 홀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한데 소란스러운 째즈곡, 양주병이 구울러 떨어져 깨여지는 소리, 취객의 혀꼬부라진 류행가 소리, 녀급의 간드러진 비명과 요사스러운 웃음 소리로 수라장을 이루고 있다.

그 한쪽 구석 간막이 속의 한 복쓰에 두 사나이가 마주 앉아 련신 양주잔을 들고 있다.

《대령님! 어서 한잔 드시죠. 난 이번에 〈부정 축재 처리법〉으로 종신 징역이나 하는 줄 알고 퍽 비관했댔습니다. 이렇게 몇 달만에 다시 사파 구경을 하게된 것은 오직 〈군사 정권〉의 덕분입지요》.

《사실 그건 군사 정권만이 베풀 수 있는 은전이오. 부정 축재자 처벌 규정을 유야무야로 만든 것은 둘째로 치고 부정 리득자 중 공장을 건설하게 될 자가 내자의 투자를 요청할 때에는 직접 투자의 방식을 취해 줄 용단까지 내렸으니까 하하하…》

《대령님! 헌데…이건 적지만 받아 두십시요》.

부정 축재자 박은 슬그머니 수표 한 장을 잔넘어 접시 옆에 내놓는다.

《미스터 박! 건 뭐요…이건 받지 못하오 〈재건〉과 〈[illegible] 일소〉가 군사 정권의 슬로간인줄 모르오?》

《대령님! 받으시지요. 그리고도 얼마든지 〈재건〉도 할 수 있고 〈부패 일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래선》

《액수가 적어 그러십니까? 다음에 또 생각이 있지요[illegible] 두십시요. 아 박 정희 의장도 〈풍한 산〉에서 2억 환을 받아 잡수신건 세상이 아는바가 아닙니까? 지난번 미국 행각시 주미 대사관 창설 이래 최대의 만찬회[illegible]국 어른들을 섬긴 것도 다 어데서 생긴[illegible]이겠습니까? 그리구 부정 축재를 조사하신 분들도 5천만 환이나 잡수시지 않았습니까?》

《입이 째여진들 함부로 놀리지 마오.》

대령은 엄하게 말은 하면서도 어느덧 잽싸게 수표를 접어 혁낭에 집어 넣는다.

《뭐 비밀일게 있습니까? 다들 해먹는데요. 보십이요! 캬바레도 초만원을 이루고 있지만 모두 [illegible]복 입은 분들이지 사민이란 저밖에 있습니까? 헤헤헤…수염이 대자라도 먹어야 합네다. 군사 정권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압니까? 한푼이라도 더 모으는게 상책이지요.》

대령은 점차 입을 다물고 말 수가 적어졌다.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잠잠히 술만 연거퍼 들이킨다.

《대령님! 미안하지만 청을 하나해도 괜찮을가요?》

《뭔데? 가능한 일이라면…》

뇌물을 먹고 난 놈이 아까 보다 더 고분고분해 지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군사 정권 당국에선 부정 축재자들을 모아 〈경제인 협회〉와 〈외자 도입 교섭단〉을 조직한다지오? 거기에 저도 좀 한 몫 들게 해 주실 수 없을가요? 외국 독점 자본을 끌어 들이기 위한 구걸 행각은 저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령님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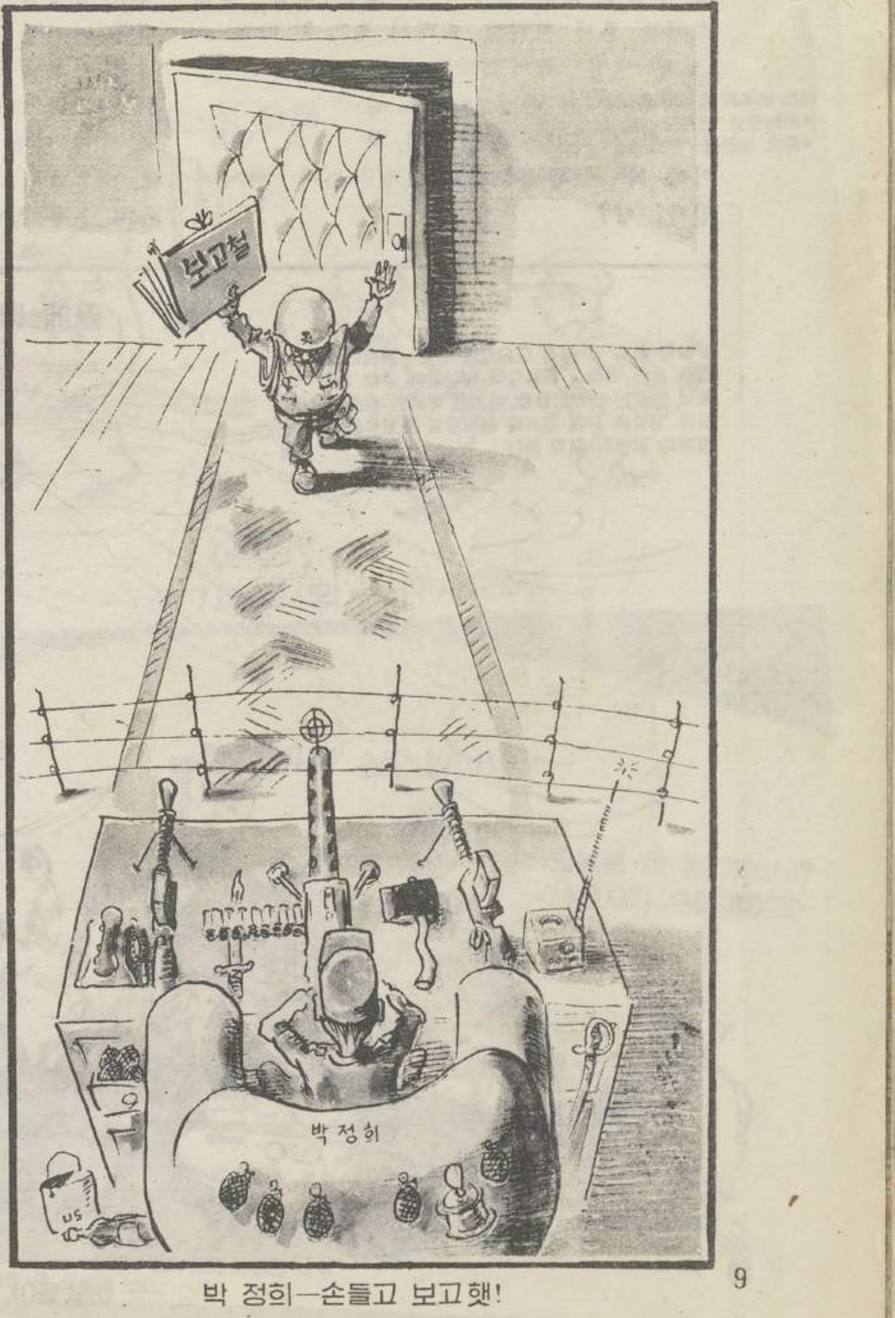
《좋소! 진력해 보리다.》

《자! 어서 쭉 한잔 냅시다. 녀급! 술과 안주를 더 가져왔!》

술상은 다시 차려지고 두 도적은 더러운 목숨들의 연장을 위해…또 무엇무엇을 위해 연거퍼 잔을 들었다.

공포에 떠는 박 정희

최근 남조선에서는 《신풍 의렬단》 사건, 《제 2 조직》 사건, 《구테타 기도》 등 군사 《정권 전복 기도》 사건이 련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 백정 박 정희 일당이 남조선 인민들로부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지배층과 군대 내부에서까지 철저히 저주 배격 받고 있으며 림종이 다가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박 정희—손들고 보고햇!

백 인균 그림

《검열관》과 편집원

로 철

☆ 남조선의 한 편집원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군부 통제하의 보도 관제는 일제 통치 시기보다 더 악질적이다. 나는 우리의 력사에서 이것이 가장 악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유피아이》 통신)

× × ×

—저, 《보도 검열관》 나으리, 원고를 검열 맞으려 왔는뎁쇼.

—이리 내놔! 뭐? 《군사 정권은 말끝마다 구악의 일소요 부패의 근절이요 하고 목에 피'대를 돋구고 있지만 내가 서울 명동에 있는 창굴 여섯 집을 직접 탐문 조사해 본데 의하면 고객의 절반은 바로 그 고관 대작 들이였다》고?

—네, 이건 사실 그대로 쓴…

—이 자식아! 이건 우리 박 정희 대장 이하 각 장관을 두고 욕질하는게 아니냐 말야, 앙?

—꼭 그렇지 않다고 꼬집어 말하기도 어렵고… 하여튼 거짓말을 쓴 것은 아니외다.

—무엇이 어짜고 어째? 이자식이 아직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이놈 마침 잘 만났다. 여기 사법부에서 내려 보낸 《법률책》이 있으니 네놈의 죄가 어떤 것인지 좀 펼쳐 보자. 옳지, 여기 이렇게 써여 있다. 《무릇 관가를 욕하는 자는 곤장 백 대를 되우 쳐 마땅하노라》 들었느냐?

—아니 《검열관》 나으리, 그거야 까마아득한 저 리조 봉건 때 쓰던 《대전 통편》에 있는 말이 아니외까?

—닥쳐! 우리 《사법부》가 만든 《법률책》이라는데도 무슨 잔말이야, 앙? 그리고 말이다, 여기에 또 쓰기를 에…《천황 폐하와 황실 성원의 행동 거지를 허가 없이 조사하는 자는 1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했고…

—그, 그건 일본놈이 쓰면 그 괴괴 묵은 《륙법 전서》가 아니외까? 그리고 저는 그 어떤 염병할 《폐하》의 행동 거지를 조사한게 아니라 창기들의 뒤를 파본데 지나지 않는뎁쇼.

—이놈! 그래도 입을 다물지 못할가, 앙? 또 여기 이런 조항도 써 있으니 들어라! 에…《본관과 본관의 명령을 집행하는 군정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30 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5만 딸라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들었느냐?

—하하, 이 번엔 다 낡아 빠진 미 군정청의 《포고령》까지 끄집어 놓았군요. 그런데 《검열관》 나으리, 이 《군사 정권》 하에서는 창굴 출입도 공무 집행으로 쳐 주는가요?

—닥쳐! 듣기만 하라는데도 무슨 잔말이야! 그럼 네 이놈, 《대한 민국의 관공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자는 공산 분자로 인정하고 무기 징역까지 처한다》라는 요 조항에 걸려 들고 싶어서 그러느냐, 앙?

—흥, 그러구 보니 송장 신세된 리 승만의 악명 높은 《국가 보안법》도 되살려 놓았군 그래 《검열관》 나으리, 창굴에 드나드는 녀석의 비행을 폭로하는게 《명예 손상죄》에 걸린다면 부패를 일삼는 자에겐 훈장쯤 달아주어야한다고 그 《법률책》에 써 있을테니 어데 좀 더 뒤져 보시지요?

—무엇이 어째? 아니, 정말 이놈의 새끼가 우리 법의 맛을 모르는 모양이로구나, 앙?

—엇수다! 리조 봉건, 일제, 미 군정, 리 승만 시대의 악법이란 악법에 다 걸리지 않고 당신들 비위에도 잘 맞게 원고를 싹 고쳐 놓았으니 어서 받아 보시우.

—뭐? 싹 고쳤다고? 그럼 어데 좀 보자. 《군사 정권은 말끝마다 구악의 일소요 부패의 근절이요 하고 목에 피'대를 돋구고 있지만 내가 서울 명동에 있는 창굴 여섯 집을 직접 탐문 조사해 본데 의하면 고객의 절반은 바로 그 고관 대직들이 아니였다》… 흥, 끝내 《아니였다》라고 고쳤단 말이지, 암 그러면 그렇겠지, 이게 누구의 세상이라고 세가 안고치고 베겨 낼 수 있나…

그런데 가만 있거라, 이거 다시 읽어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저건 《고객의 절반은 바로 그 고관 대직들이였다.》고 이건 《고객의 절반은 바로 그 고관 대직 들이 아니였다.》라… 앗! 이, 이건 결국 둘러치나 메치나 매 한가지 말이 아니냐, 앙? 이, 이건 《최고 재건 회의의 포고령 제 2 호 현 정권에 반항하거나 반항하려고 생각하는 자는 령장 없이 체포 구금하고 사형에 처할 것》이라는 조항에 걸어서 군사 재판에 넘겨야 할 사형'감이다, 사형'감!

그런데… 그 《죄수》 녀석이 어델 갔을가?

앗! 그 녀석, 내가 《법률책》을 소경 천자문 외우듯이 하는 짬에 삼십륙계 주랑당을 쳐 버렸구나…

물에 빠진자의 목 틀어 박기

살인 강도 박 정희 도당들은 최근 동해안 일대를 휩쓴 혹심한 풍랑으로 말미암아 생사 기로에서 헤매는 리재민들을 구원할 대책을 세울 대신에 오히려 가렴 잡세를 들씌우고 출혈적인 수탈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

이놈들아 세금이나 물고 죽으려므나…

조 명식 그림

미제 식민지 군사화 정책이 남긴 흔적

박 승히 그림

살인 강도 박 정희 일당은 소위 《건국 국채 소화 요령》을 조작하여 물건을 사고 파는데도 국채를 《의무적》으로 살 것을 강요하고 있다.

아이보다 배꼽이 크다

—담배 한 갑 삽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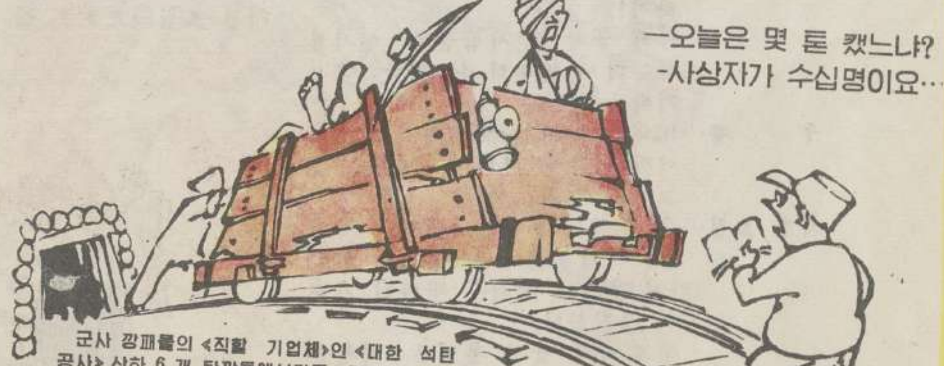
—예! 담배 값이 백 환이고 《국채》 값이 천 환입니다

몽둥이 교육

살인 강도 박 정희 일당에 의하여 혹독한 군사 파쑈 질서가 강요되고 있는 남조선 학원들에서는 학생들을 구타하고 고문하는 《몽둥이 교육》이 우심하게 성행하고 있다.

—약은 가져 오지만 무시무시한데…

탄광이냐? 살인광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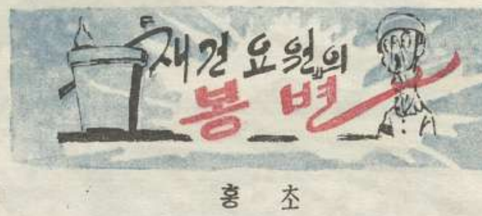


—오늘은 몇 톤 캤느냐?

-사상자가 수십명이요…

군사 깡패들의 《직할 기업체》인 《대한 석탄 공사》 산하 6 개 탄광들에서만도 작년 11 개월간 로동 재해 건수가 지난 5 년간 년평균 발생 건수 보다 20%나 증가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계속 각지에서 로동 재해가 빈발하고 있다고 대구 《매일 신문》은 전하고 있다.

최 영근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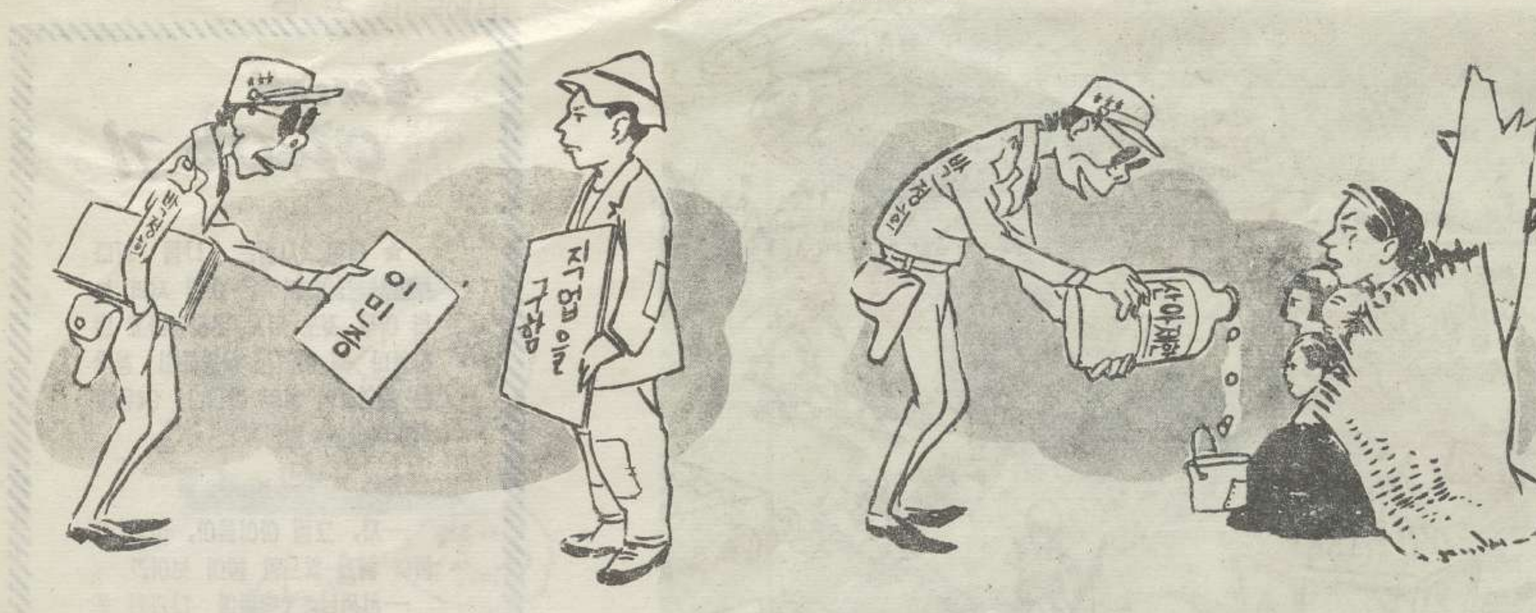


홍 초

나오는 사람
재건 요원…25 세 가량의 젊은인데 《재건 복》을 입었고 팔에는 《재건 요원》이란 완장을 둘렀다.
구장…40 세 가량의 봉건 냄새가 풍기는 허잡이.
로파…60 세가 넘은 파파 늙은 로인
△ 무대 장치는 필요없으며 막간에 막 앞에서 진행할 수 있다.
막 뒤 소리로
구　　장…요원 나리 이쪽입니다.
재건 요원…엉, 그래 사람이 얼마나 모였어?
구　　장…헤헤헤 그저 장내가 꽉 들어 찼습죠. 제 손탁에 걸려 배겨낼 놈이 어데 있겠습니까? 헤헤. 이쪽입니다.
재건 요원…어험, 본'대 있게 해 내야 한다. 엉.
구　　장…헤헤헤 문제 없죠.
△ 구장의 안내로 《재건 요원》이 등장.

구　　장…에또 여러분 조용히 하슈.
재건 요원…이봐 구장, 재건 인사부터 해야지. 엉
구　　장…헤헤 깜빡 잊었군요, 에헴 《재건하자!》
재건 요원…좀 더 크게 웨치란 말이야. 엉 뒤에까지 찌렁찌렁 들리게 말이야.
구　　장…네네 에헴 《재건하자!》 헤헤헤. 여러 분! 지금부터 군사 정권에서 나오신 재건 요원 나리께서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들 명심해서 듣기를 바라오. 자 그럼 나리께서…
재건 요원…(군대식으로 한발작 나서면서 군호를 웨치듯 소리친다) 《재건 하자!》
여봐 구장 이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데 아까부터 왜 자꾸 웃는 거야. 엉
구　　장…네네. 거 재건 요원께서 나오시니까 너무두 기뻐서 모두들 웃고 있는깁죠. 헤헤.
재건 요원…음 기뻐서 웃는다. 됐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명랑하게 웃으니 본관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에또 우리 군사 정권은 백성들을 잘 살게하기 위하야 에—불철주야 분투해 오는바이 온데, 이민 계획을 우리 《군사 정권》이 사절단을 남미주 제국에 파견해서 실행 단계에까지 추진시킬 수 있는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에, 우리가 지금 잘 살지 못하는 것은 이 남한 땅에 인구가 너무도 많아서 그런거다. 만일 《이민》 계획이 실천에 들어선다면 에…
△ 이때 관중석에서 로파가 앞으로 허둥지둥 나온다.
로　　파…재건 요원 나리, 이민인지 석햄지는 몰라두 그게 남미주란데 사람을 보낸다는거 아니유.
구　　장…허, 나리께서 말씀 중인데 불손하게…썩 들어가지 못할가
재건 요원…허 좋와 좋와, 군인은 긴 말을 하는 걸 좋와하지 않는단 말이야, 누구던지 속 씨원히 물어볼 것을 허가한다.
로　　인…요원 나리 이민이란게 사람을 남미주로 보내는게 아니유?
재건 요원…호호호 그렇다,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주 여러 나라들에 이민을 시키는거다.
로　　파…이민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 올 수 있나요?
재건 요원…그래, 그래, 제발로 돌아 오는 건 자유란 말이다.
로　　파…그럼 요원나리 이 늙은 것을 꼭 보내도록 해주슈, 소원이나 풀게
재건 요원…호호호 거참 좋은 말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두 이민으로 보내는 사람은 힘팔이나 쓰는 장정이여야 한다. 말하자면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다.
로　　파…에구 늙은 것은 사람 값에 않치우. 그럼 우리 집 젊은 사람은 갔다 올 수 있겠지유.
재건 요원…호호호, 구장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군사 정권에 협력하는 부락은 처음 봤어. 매우 좋은 일이야.
구　　장…헤헤 우리 부락이야 일등 재건 부락입죠. 헤헤
로　　파…아니 재건 부락이구 망건 부락이구 우리집 젊은이를 다녀오게 해 줄테요 어쩔테요.
재건 요원…호호호 잘 생각했다. 내가 힘써서 꼭 보내도록 하겠다. 이민으루 가기만 하는 날이면 생전 부자가 돼서 돌아 오게 될 것이다 헤헤헤.
로　　파…뭐요? 부자가 돼요? 원 말갈지 않쉐다. 그런 소린 그만두구 우리 집 사람이나 꼭 갔다 오게 해 주슈.
재건 요원…아니 그럼 돈 벌이를 가는게 아니란 말이야?
로　　파…돈은 어데가 번단 말이유, 아 그래 제 나라에서두 못살든 사람들에게 누가 돈을 준대요. 지금 생각해두 통분해서, 글쎄 거게 간 사람은 몽땅 죽었다우, 하늘두 무심하지, 시퍼런 젊은이가 무더기로 죽다니, 아이유.
재건 요원…아니 이 로친네가, 아들을 보내겠다면서 비방이야. 어 구장, 저 로친네가 잘 못된거 아니야, 엉.
로　　파…뭐요 내가 잘 못됐다구. 여기 모인 사람 보구 물어 보슈, 내가 미쳤는가, 자네들이 미쳤는가. 50 년전에 미국놈들이 무슨 개척 회사지 뭔지 하는 간판을 달구 왜놈들과 한속이 돼서 우리 조선 청년들을 얼마나 끌어 갔소, 아이유 근데 우리 돌쇠 애비가 돈'벌이가 된다는 저 따위 소리에 속아서 남미준지 뭔지하는 이역 만리 땅에 떠났다가 굶주리구 매 맞구 객사 했다우, 아이유, 낯 설구 물 설은 땅에서 객사했다우. (흐느낀다)
재건 요원…아니 이 로친네가 미쳤어, 엉 그런데 왜 아들을 보낸다는거야.
로　　파…이 미련한 사람들아 누가 아들을 보낸대 자식된 도리루 백골이나 찾으려구 갔다 오겠다는거야. 이 늙은 것의 생전에 우리 돌쇠 애비 백골이라두 찾았으면 원어나 풀겠슈, 아이유.
재건 요원…뭐 뭐 백골을 찾아 그런 불온한 자는 군사 재판으로 처벌한다앙.
로　　파…아니 네놈들은 부모두 없느냐, 제 애비 백골을 찾는게 뭐가 불온 분자란 말이냐.
재건 요원…덮어 놓구 처단이다. 처단, 처단.
△ 군중들의 웨침소리…처단을 받아야 할 자는 제 나라 백성을 미국놈의 노예로 팔아 넘기려는 네놈들이다!!
△ 《재건 요원》과 《구장》이 황겁히 퇴장하는데 《구장》은 《재건 요원》의 광무니를 붙잡고 벌벌 떨며 나간다.

박 정희의 구제 대책



홍 종호 그림

날강도

김 윤섭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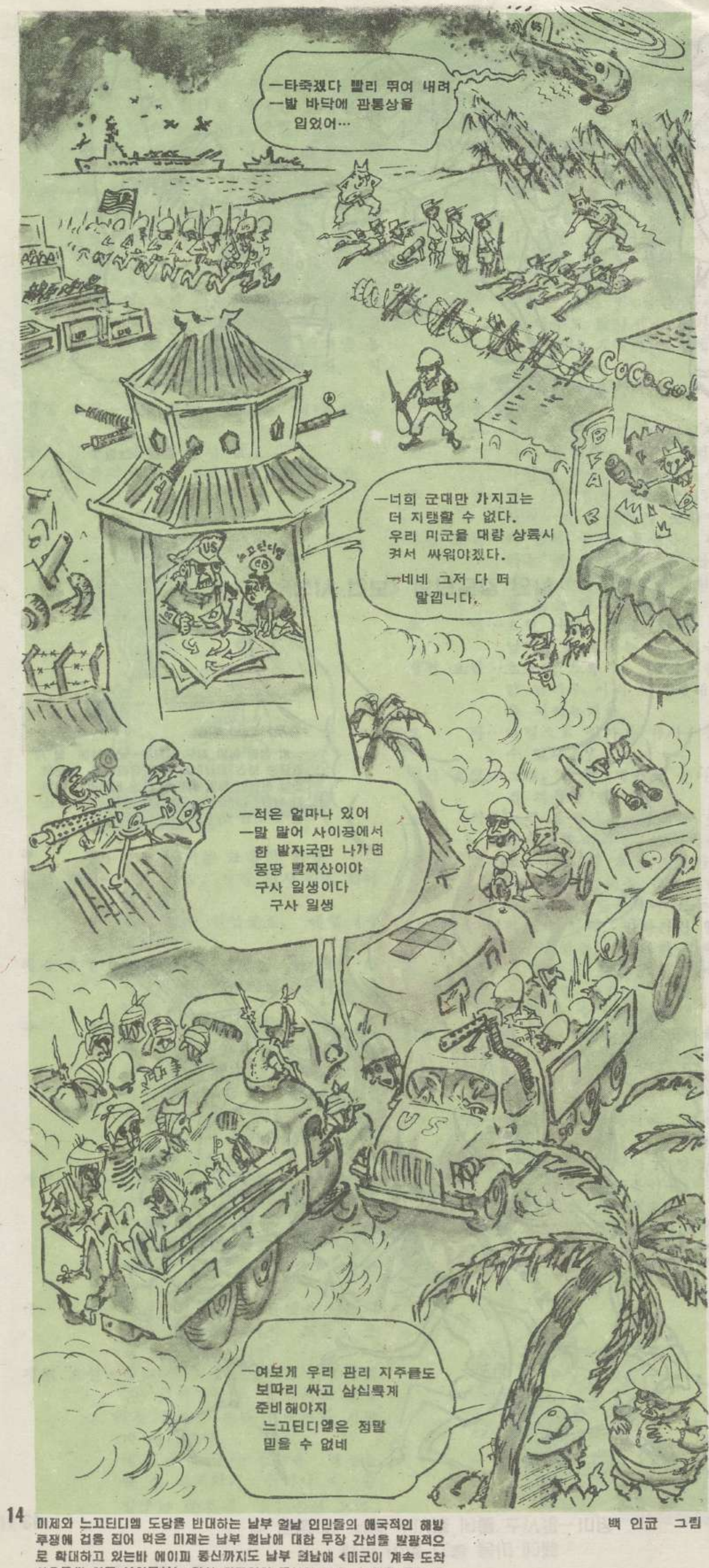
살인 강도단의 《보건 시책》

박 정희 살인 강도 집단은 남조선에 몇 개 안되는 보건 시설마저 파괴 유린하고 있으며 조상 전래의 동의학 마저 없애 버리려고 날뛰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 남조선은 《병마의 소굴》로 되고 있다.

병마—얼시구 좋네 절시구 좋네 박 정희 덕택에 마음 놓고 놀아 보세

박 승히 그림

사이공에서



백 인균 그림

미제와 느고딘디엠 도당을 반대하는 남부 월남 인민들의 애국적인 해방 투쟁에 겁을 집어 먹은 미제는 남부 월남에 대한 무장 간섭을 발광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바 에이피 통신까지도 남부 월남에 《미군이 계속 도착함으로써 최근 사이공시는 마치 미국인의 도시와 같은 느낌을 준다》고 썼다.

쌀에 대한 이야기

★ 어떤 사람은 나를 쳐다 보면서 그의 가족은 어제 저녁 부터 아무 것도 먹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는 례외적인 일이 아니다. (《유에쓰아이에쓰》 통신)

× × ×

—자, 그럼 아이들아, 이젠 뭐 물어 볼게 있으면 물어 보아라.

—선생님, (흑판에 다가가 쓰면서)

飯—이게 무슨 자인가요?

—오냐, 그건 《밥반》, 즉 쌀로 만든 밥이란 뜻이다, 알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그 《쌀》이라는건 칡 뿌리 같은 건가요?

—아니지요, 선생님? 그건 소나무 껍질 같은 거지요? 우리는 그것을 밥이라고 먹는데요 뭐.

—아냐! 《꿀꿀죽》 가지고 《쌀》이라고 그럴거야, 우리 어머닌 말끝마다 《〈꿀꿀죽〉이라도 있으면 오죽이나 좋겠니…》하고 그러시던데 뭐? 그렇지요 선생님?

—아니, 그건 호박으로 만든 걸거야요?

—아냐! 내 말이 옳아.

—아냐!

—얘들아 떠들지 말아라! 그 《쌀》이라는 건 말이다…에…이거 내 정신 좀 보아라. 아무튼 그건 우리 조상들이 먹던건데…거 무엇이라고 할가… 내가 얼마 전까지 먹던 그 죽과 비슷한 것이라고 해도 너희들은 그게 무엇인지 모를게고…아, 참 답답하고나, 참…

—아, 선생님 말씀하시다 잠 드셨네…

—쉿! 선생님은 허기증이 나서 까무러치신거야. 이틀전부터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했거던…

미국에서는 강도 사건이 6분만에 한 건씩 발생하여 강도 사건이 많기로도 세계 제일이다.

강도 (미국에서)

최 영근 그림

침략자의 정체

김 성엽 그림

케네디는 히틀러와 도죠 등 《선배》들을 모방하여 《반공》 정책에 매달리며 침략과 전쟁 《놀음》을 일삼고 있는 바 케네디의 운명은 《반공》에 날뛰다가 제불에 타 죽고 만 히틀러나 도죠의 운명과 달리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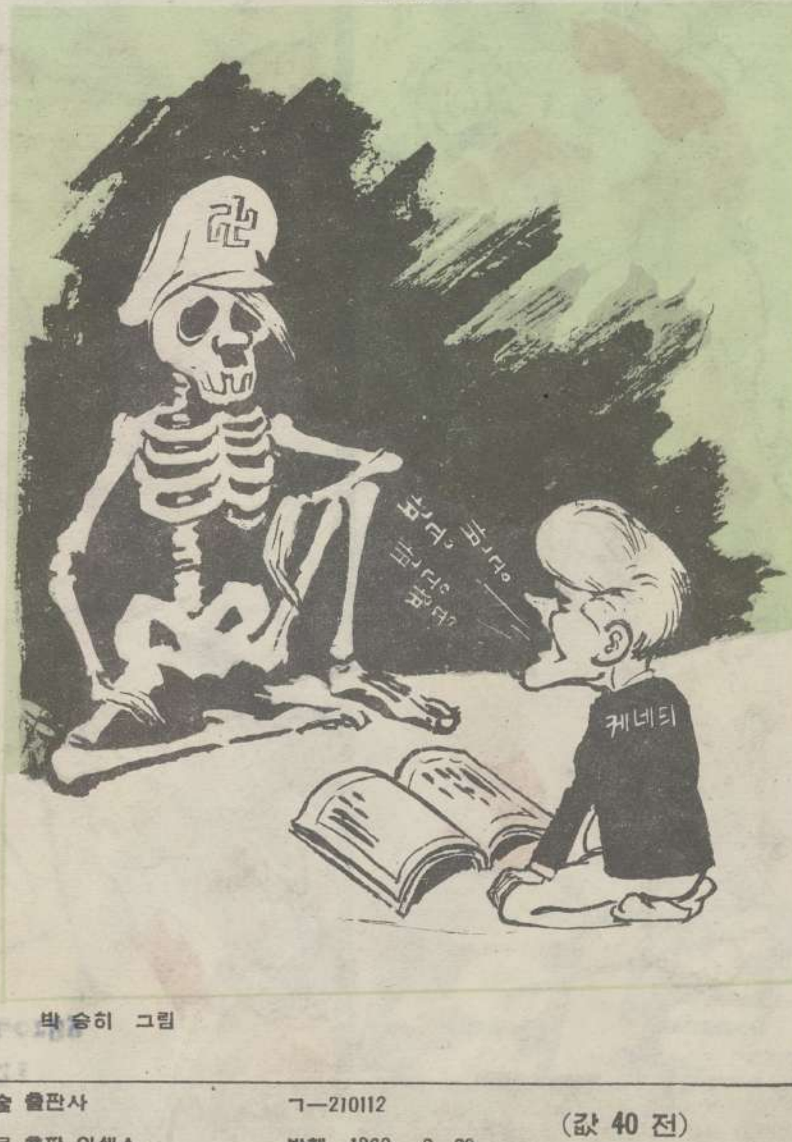
만화 속담

남의 발에 간발한다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은 남조선 경제를 일본 독점 재벌에 예속시키며 남조선에 대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침투를 보장하고 있다.

문 홍관 그림

모범생



박 승히 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 국립 미술 출판사 ㄱ—210112

인쇄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62. 2. 20

(값 40 전)

8280
ХВАЛЬСАЛЬ

9-1-12 8280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ольству
ул. Чайковского 19/21
Пех-1

조 명식 그림